* **비트코인이란?**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가치를 전달(How to transfer ‘Value’) 시키는 것에 자리잡고 있다. 비트코인의 백서에 씌여 있듯이, 비트코인의 아름다운 장점은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제 3자의 개입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A가 B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다. 비트코인이 해쉬화 된 후에 비트코인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의 블록에 쌓이고 거래가 진행된다. 블록체인에 블록을 쌓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제 3자의 도움이 전혀 없게 되는 것. 여기에 쌓이는 거래 장부인 블록을 해결하기란 절대 불가능. 비트코인을 통한 ㅓ래들은 이전 거래들의 기록을 기준으로 새로운 거래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 이러한 장부의 역사들까지 통째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암호 화폐의 큰 형님이다.
* **이더리움이란?**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암호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로서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면, 이더리움은 훨씬 더 광범위한 기능을 가능케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다. 비트코인의 기능은 금전적 가치를 전달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은 금전적 가치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가능하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두 제 3자의 개입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든 YouTube와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유저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광고 수입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광고주들에게 받을 수 있다. (Youtube가 가져가는 개인 유튜버들의 광고 수입 커미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듯)  
  요약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탈중앙화된 플렛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토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더리움 코인(이더)이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토큰이 이더(ether)이고 이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더의 가치가 상승할텐데, 이더리움 플랫폼의 너무나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장점들 때문에 가치 상승률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신’. 인터넷이 도입된 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어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게 되었고, 금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금전적 가치 전달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서버를 통한 제 3자의 개입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제 3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신뢰 가능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을 것. 그리고 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래 가치 때문에 현재의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
*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Vitalik)에 따르면 탈중앙화의 개념은 3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다.  
  1. 건축적 탈중앙화 (Architectural Decentraliz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퓨터들 중에서 몇 대의 컴퓨터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중앙화시스템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물리적인 변화에도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하는 듯)  
  2. 정치적 탈중앙화 (Political Decentralization)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이 시스템은 중앙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시스템 전체를 주도하거나 따르게 만들 수 없다면 이 시스템은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3. 논리적 탈중앙화 (Logical Decentralization)  
  만약 시스템이 하나의 개체로서 작용한다면 그 시스템은 중앙화 시스템이다. 반대로,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작은 개체들로 분리시켰을 때 원래 의도대로 작용한다면 그시스템은 탈중아화 시스템이다.  
    
  이러한 중앙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 **이더리움의 PoS 방식으로의 변화**기존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노동 증명(PoW : Proof of Work) 방식으로 이더리움 유저들에게 이더를 분배해 왔음. 하지만 비탈릭은 곧 다가오는 메트로폴리스 업데이트 기준으로 노동 증명 + 지분 증명(PoS : Proof of Stake)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더를 분배할 계획.  
  PoS 방식은 채굴자들이 아닌 검증인들이 코인 분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증인들은 자신들의 지분(Stake)를 블록체인에 묶어두고 블록체인에 추가될 블록들을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예측된 블록들이 블록체인에 추가되면 베팅한 대가에 대한 코인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더의 검증인이 되려면 최소한 1000이더를 묶어둬야 한다.  
  PoS방식의 장점은 2가지가 있다.  
  1. PoS를 통한 실행능력 개선  
  기존의 PoW를 통한 채굴 방식은 많은 양의 전기와 노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PoS를 통한 코인 획득 방식은 검증인들만 필요로 하게되기 때문에 블록들을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에 추가시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름. 또한 블록 추가 속도가 빨라지게 됨으로써 전세계의 많은 유저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떄, 스케일적으로 뒷바쳐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화된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2. PoS를 통한 보안 문제 개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중국에 많이 몰려있음, 만약 50% 초과의 채굴 파워를 가진 힘이 한 장소 또는 한 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블록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 하지만 PoS의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한 블록체인에서는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지분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동기가 없어짐.